

# 문화전당 정상화 발판...조직개편 등 후속작업 주목

## 아특별 개정안 국회 통과

### 문화전당 국가기관화 확정

###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5년 연장

### 문화원 직원 채용 특례 조항 삭제

### 5년 공석 전당장 선임 서둘러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의 국가소속 기관화가 확정되면서 문화전당 정상화의 단추가 마련되면서 아시아문화원과 통합, 조직 개편 등 후속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별)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향후 문화전당이 국립문화예술기관이자 문화발전소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조직 일원화 과정에서 고용 문제는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특별 개정안’은 문화전당이 원래대로 국가소속 기관으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콘텐츠 등 일부 수익사업 기능은 아시아문화재단이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존 직원을 고용승계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2031년까지 5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안 내용 중 부칙의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채용 특례’ 조항은 공무원 선발 규정인 국가공무원법과 상충될 여지가 있는데다 특례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법사위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다만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중 ‘문화전당재단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는 경과조치를 뒀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노조)는 기존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250여 명의 고

용승계를 우려하고 있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향후 아시아문화재단의 규모와 연관된 고용부분 등은 민감한 문제인 셈이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개정안 통과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필요에 의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이곳저곳으로 소속을 옮겨 발생하는 ‘고용의 불안정’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며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골자로 합의했던 광주지역사회와의 협약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아시아문화원의 노동자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자격조건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이미 그 역량이 쌓여 있고, 창작자·아시아연구·국제교류·교육 등 기관에 필요한 전문성을 이미 갖췄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벽까지 밤새워 일해 온 아시아문화원의 노동자들에게는 애초에 정년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노조의 입장은 아시아문화원 이전 당시 아시아문화개발원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와 무관치 않다. ‘일할 권리’가 ‘특혜’로 치부되는 것에 대한 속내를 읽힌다. 80여개 시민문화단체도 아특별 개정안 국회통과를 놓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단추가 마련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문체위 의결 내용보다 후퇴해 실망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 부칙 3조(아시아문화원 직원의 특례 등)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면서 문화전당 업무의 연속성·전문성·효율성 제고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아특별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의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후속 조치를 경계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아특별 개정안 통과로 지역 문화단체 등은 그동안 공석이었던 전당장을 조속히 선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5년 11월 개관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전당장이 선임되지 못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개관 이후 선임 공모를 진행한 바 있지만 2017년 12월 5차례를 끝으로 중단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중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일본과 언제든 대화...과거에 발목 잡힐 순 없어”

### 제102주년 3·1절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며 “역사지사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과 맞물려 한일관계가 경색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유화 메시지를 던진 것이어서 일본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과 우리 사이에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고, 가해지는 있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이라면서도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

라고 밝혔다.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을 거론하며 “한일 간,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함께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출범시켰다고 소개한 뒤 “일본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고,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여내 국가들과 협력·교류하길 희망한다”며 “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질적으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남북관계 진

전의 실마리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전쟁불용, 상호안보보장, 공동번영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3주 연속 40%대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2일-26일 전국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2%포인트 오른 41.8%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2.5%포인트 하락한 53.6%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 측은 지지율 상승과 관련, “백신 보급 및 접종 개시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도약 기틀 마련”

### 아특별 주도 이병훈 국회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구·사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아특별의 국회 통과와 관련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확보, 조직의 구축,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 중요하며 전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제적으로 각광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특별 국회 통과를 위해 상임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끈질기게 하는 등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 ‘반대’로 일관하는 국민의힘 상임위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 작업을 했고, 사실상 ‘배수의 진’을 치고 법안 통과에 몰두했다.

아특별 개정안은 애초 아시아문화원의 위탁 유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1차 법안과 문화전당의 공공성 확보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조직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이 추가된 2차 법안이 있었다.

하지만 일부에서 기간만 먼저 연장(1차 법안)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한 2차 법안을 반대할 우려가 커지면서 1차 법안을 철회하는 강수를 뒀다.

이 의원은 “기간부터 연장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단과 온 배를 불태우는 심정으로 장기 발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에 집중했다”면서 “한 목소리를 내 준 시민과 시민단체, 광주시의회에 뜻 깊은 법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차기 대권 선호도, 이재명 독주·이낙연 반등·윤석열 정체

각각 23.6%·15.5%·15.5% 기록

리얼미터 여론조사...안철수 4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를 유지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2~26일 전국 2536명을 상대로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23.6%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

지사의 최고치다. 30대(19.3%→24.8%)에서 상승 폭이 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9%포인트 오른 15.5%를 나타냈다. 광주·전라(21.2%→27.8%), 부산·울산·경남(12.5%→16.6%), 40대(12.3%→15.5%)에서 회복세를 보이면서 10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9%포인트 하락한 15.5%로 이 대표와 공동 2위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충청(24.7%→12.2%), 50대(21.5%→15.5%)에서 낙폭이 컸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7.0%,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6.6%,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2%,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0%를 각각 기록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2.8%, 유승민 전 의원 2.4%, 정세균 국무총리 2.4%,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2.3%,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 2.0%, 원희룡 제주지사 1.6%, 김두관 의원 0.9%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